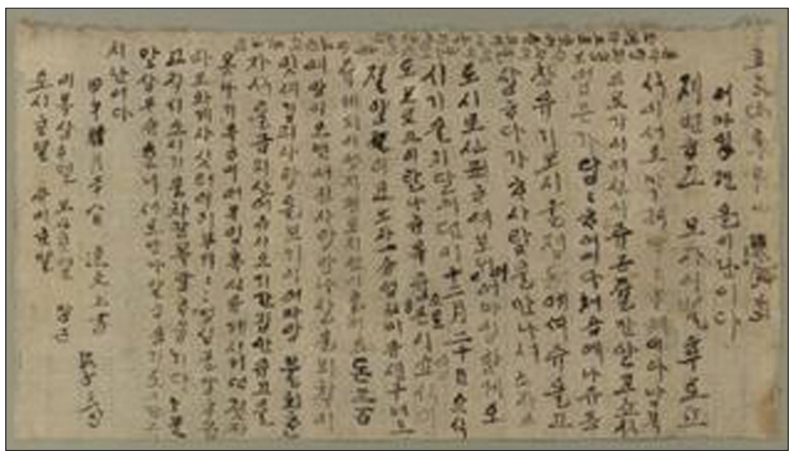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동학농민군 생산한 회고록 · 일기 등 총 185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지난 18일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로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총 185건으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유광화의 편지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다가 체포된 한달문의 편지,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심문기록 등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회고록과 일기, 유생 등이 생산한 각종 문집, 그리고 조선 관리와 진압군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다가 체포된 한달문의 편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독립기념관, 고궁박물관, 천도교중앙총부 등 여러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는 2024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특별전시 등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이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인들에게 보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인 · 명창 명품 공연 '굿(Good) 보러가자'

군산예술의전당, 6월 2일 송가인 퓨전국악 등 다양한 무대 진행

군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스트롯1 진 송가인이 찾아온다.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과 공동기획으로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시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를 초청해 전통문화예술을 선보이며 산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부터 퓨전국악인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예인들의 다채로운 가(歌)·무(舞)·악(樂)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김일구(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의 판소리,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다채로운 가락,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선보이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lectronic Dance Music) 사운드와 전통음악의 퓨전 공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가수 송가인이 선보이는 퓨전국악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운영되며 오는 23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인터넷예매(1인 2매)가 진행되고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연당일 현장배부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기획공연 '남원에 새봄이 들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토요국악무대' 일환으로 창극 '남원에 새봄이 들어'를 예원당 무대에 올린다.

토요국악무대는 기악연주, 우리 춤, 사물연희, 단막창극 등 다채로운 전통공연예술과 만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으로, 이번 무대는 제93회 남원 춘향제를 기념해 펼쳐진다.

이번 창극은 '춘향전' 중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을 다시 찾으며 춘향을 만날 기대에 부풀지만, 춘향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야기를 듣고 급히 길을 재촉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남원의 새봄을 노래하는 내용이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조용안 예술감독이 각색을 맡아 기존 창극의 소릿대목과 수성반주를 정교하게 구성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및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가족은 내가 지킨다' 심폐소생술 교육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0일 4층 세미나실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최동욱 응급처치 강사와 전당 시설관리팀 직원이 함께 해 전당을 방문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통놀이 체험을 신청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으며, 교육용 마네킹 '애니'를 활용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응 방법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김도영 원장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후 4분이 골든타임이다. 결국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체험과정에서 혹시나 발생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무엇보다 가족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취지 아래 이번 CPR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청년 작가, 이당미술관에 모였다

6월 10일까지 작가 8인 작품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당미술관(관장 정태균)이 군산 청년작가전 'attention'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접하기 쉬운 도내의 민간 문화시설을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이당미술관 등 총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당미술관은 2015년 군산시 영화동에 개관,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창작 및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복합 문화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당미술관이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군산 청년작가전 'attention'으로, 군산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8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정태균 관장은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고 상생하며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기획전 'attention'은 6월 10일까지 이당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